

또 중국에 막혔지만...한국탁구 빛나는 투혼

남녀단체, 나란히 중국에 0-2 분패
오늘 TT 1-2등급 남자단체 결승전
프랑스 상대 금메달 딸 마지막 찬스

 남녀장애인탁구대표팀이 빛나는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서수연(35·광주시청)-이미규(33·울산시장애인체육회)-윤지유(21·성남시청)로 구성된 여자탁구대표팀은 2일 도쿄 메트로폴리탄체육관에서 열린 2020도쿄패럴림픽 여자단체 결승(스포츠등급 TT 1-3)에서 중국의 리첸-류징-쉐취안과 접전을 펼쳤으나 게임스코어 0-2로 분패했다.

백영복(44·장수군장애인체육회)-김영건(37)-김정길(35·이상 광주시청)로 이뤄진 남자탁구대표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앞서 펼쳐진 남자단체 결승(스포츠등급 TT 4-5)에서 중국의 차오닝-귀성위안-장예에 게임스코어 0-2로 졌다.



2일 도쿄 메트로폴리탄체육관에서 열린 도쿄패럴림픽 탁구 종목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값진 은메달을 합작했다. 윤지유(위 왼쪽)-이미규는 여자단체전, 김영건(아래 왼쪽)-김정길은 남자단체전 결승에서 나란히 중국에 가로막혔다. 도교 | 도쿄패럴림픽 사진공통취재단

제1복식에선 '단식 동메달리스트 듀오' 이미규-윤지유가 쉐취안-리첸을 맞아 1세트 11-6으로 따내며 기본 좋게 출발했다. 2세트 11-9로 잡아 금세라도 승리를 거머쥘 듯했다. 그러나 3세트를 7-11로 내준 데 이어 4세트 9-11로 저 마지막 5세트로 몰렸다. 윤지유-이미규는 1-4, 4-7로 계속 밀렸으나 7-6, 8-7, 9-10으로 막판까지 접전을 이어간 끝에 9-11로 석패했다.

제2단식에선 윤지유가 쉐취안과 맞붙었다. 윤지유는 2세트를 11-2, 3세트를 11-6으로 따내며 분전했지만 마지막 5세트를 7-11로 내주고 세트스코어 2-3으로 아깝게 패했다.

이날까지 금 1개, 은 5개, 동 6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휩쓴 장애인탁구대표팀은 3일 또 한번 금메달을 노린다. 이날 오후 5시부터 펼쳐질 TT 1-2 등급 남자단체 결승에서 차수용(41·대구광역시)-박진철(39·광주시청)-김현욱(26·울산시장애인체육회)이 프랑스 팀을 상대로 마지막 금메달에 도전한다.

남장현 기자·도쿄패럴림픽 공동취재단

학폭 후유증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정지석 '데이트 폭력'

폭행에 불법촬영까지 당했다는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부순 것만 인정...다 까발릴 것" 폭로
대한항공 "수사결과 나올때까지 훈련 제외"



정지석

KOVO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 시즌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는 V리그에 또 악재가 터졌다.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폭로다. 지난 시즌 잇달아 나온 학교폭력 폭로로 팀 순위가 뒤바뀌고, 몇몇 선수들이 리그를 떠나는 등 엄청난 후유증을 겪은 V리그가 이번엔 밀어닥친 파도는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다.

당분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주인공은 대한항공 정지석(26)이다. 현재 남자배구 최고의 스타가 여성을 폭행했고, 불법촬영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그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이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글과 사진을 1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폭로자는 "정지석이 휴대전화를 부순고 폭행했으며 함께 살았던 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반성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부순 것만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정지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치료를 위해) 여성의 다리에 땀가를 붙여주는 사진 등도 공개했다.

그는 "조용히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 나도 귀찮아서 가만히 있었을 텐데 이제 벌금 내고 처벌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인성이 어떤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며 폭로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배구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확산되고 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데이트폭력이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지석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불법촬영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도 있지만, 일단 경찰 조사를 받고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팀 대한항공은 2일 사과와 함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한 조치를 약속했다. 구단은 "무엇보다도 이번 논란을 초래한 부분에 배구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선수는 일체의 훈련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관계기관의 조사에 충실하게 임할 계획이며, 구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게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지석을 팀 훈련에 합류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구단의 뜻이다.

새 시즌 개막을 한 달 남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주전 레프트의 공백은 대한항공의 전력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다. 공백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다만 구단은 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 나왔기에 수사기관이 당사자 모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선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입각해 "아직 사건의 전후 상황 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선수 개인의 일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아프간을 향한 희망의 발차기

아프가니스탄 장애인 태권도선수 자키아 쿠다다디(오른쪽)의 도쿄패럴림픽 참가가 그 자체로 극적이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해 출국길이 막혔던 탓이다. 2일 여자 49kg급 16강전에서 패했지만, 위대한 도전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다. 지배(일본) | AP뉴시스

목숨 걸고 탈출 태권도 쿠다다디 16강전 패했지만 위대한 도전 감동

아프가니스탄의 장애인 여자태권도선수 자키아 쿠다다디(23)가 어지러운 조국에 희망의 발차기를 선물했다.

쿠다다디는 2일 일본 지바 마쿠하리메세B홀에서 열린 2020도쿄패럴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스포츠등급 K44) 16강전에서 지요다촌 이자코바(우즈베키스탄)와 당당히 맞섰으나 12-17로 패했다.

쿠다다디는 긴 다리를 이용한 몸통 공격을 앞세워 1라운드 6-5로 앞섰다. 그러나 2라운드에선 3차례 발차기를 허용해 8-12로 뒤졌다. 마지막 3라운드에서 추격에 나섰으나, 승부를 뒤집진 못했다.

아쉬운 패배지만, 위대한 도전이었다. 원할 선천성 장애를 지닌 쿠다다디는 하마터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뻔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해 수도 카불에서 출국길이 막혔다.

포기하지 않았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쿠다다디는 "아프간 여성으로, 아프간 여성대표로 도움을 청한다. 패럴림픽 출전이 목표다. 내 손을 잡고 도와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이에 호주, 프랑스 등 여러 정부와 국제기구가 응답했다. 프랑스 파리를 거쳐 도쿄에 입성한 쿠다다디는 이날 출전으로 아프간 최초로 패럴림픽에 나선 태권도선수이자, 2004년 아테네대회에 출전한 마리나 카림에 이은 아프간의 2번째 여성 패럴림픽 선수로 기록됐다.

남장현 기자·도쿄패럴림픽 공동취재단

이번엔 "쯔위 팬클럽 이름 바꿔라"...중국 연예계 통제 한류전선 비상

탈세 정황 539억 벌금...자오웨이 출연작 삭제 갈수록 엄격해지는 규제...한류에도 큰 영향
한류팬 1000만명! "한한령 완화 쉽지 않아"

그들 트와이스의 멤버 쯔위의 중국 웨이보 팬클럽은 최근 명칭을 바꾸라는 웨이보의 통보를 받았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중국판에 출연한 연기자 정상(정상은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2억9900만위안(539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영화 '적벽대전' 시리즈와 드라마 '황제의 딸' 등으로 낯익은 자오웨이(조미)도 엇비슷한 의혹으로 온라인에서 출연작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서 사진을 찍은 연기자 장저



정상

자오웨이

한(장철환)도 연예계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중국의 방송을 관리·감독·규제

하는 관전중국이 2일 심상찮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 "정치적 소양과 도덕적 품행, 사회적 평가 등을 기준으로 방송과 인터넷 시청 플랫폼의 출연자를 선정하라"고 현장에 통보했다. 또 "불법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을 "단호히 배제"하도록 했다. 최근 중국 일부 연예인들의 상황은 결국 현지 당국이 빼던 엄격한 규제의 칼날 위에서 있었던 셈이다.

이에 중국 한류에도 일정한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는 시선이 나온다. 한국드라마와 영화, 대중음악 등 콘텐츠는 1990년대

말 이후 꾸준히 현지 인기를 모아왔다. 하지만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해 한국 콘텐츠 유통 등을 규제하려는 중국 측의 '한한령' 조치로 열기는 사그라졌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올해 3월 내놓은 '2020 한류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한류 팬은 1000만명이나 줄어들었다. 미주 및 유럽 지역에서 팬이 늘어난 것과 대비된 상황은 지난해 7월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대규모 프로모션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그럼에도 중국 사정에 정통한 한류 관계자는 당시 "기대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탓도 있지만 현지 한류 관련업계나 관계자들은 어

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2일 이 관계자는 "해외 문화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면서 "자국 콘텐츠를 보호하고 확장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한준욱 중국 총칭 통시원은 한한령 이후 "중국인들이 접하는 한국드라마 가운데 정식 판권을 수입해 합법적으로 방영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현지의 드라마 제작 능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다시 시작될 한중 문화교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중국 상황과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